

# 시 연구의 방법론적 전회

정기인\*

[서평] 조강석(2021),  
『한국시의 이미지: 사유와 정동의 시학』,  
소명출판, 408쪽

## 1. 시 텍스트 내부에서 외부로의 전개를 위한 이미지와 정동

조강석 교수의 저서 『한국시의 이미지: 사유와 정동의 시학』은 기존 한국시 연구가 문화론적 전회 이후 시 텍스트를 “문화와 제도, 그리고 사상의 알리바이”(7)<sup>1</sup>로서 사용했던 것을 발본적으로 비판하고 시 텍스트를 진술로 환원되기를 거부하는 ‘내적 실재’로 보고, 이를 구심적으로 파악하여 그 내적 실재의 양상을 파악하고 이후에 원심적으로 이러한 내적 실재로서의 텍스트가 외부 세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탐구할 수 있는 시적 방법론을 수립하고자 한다. 이 서평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시 전공자의 관점에서, 『인문논총』이라는 지면의 특성상 해당 책의 내용을 시나 문학 전공자뿐만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인문학 전공자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쓰인다.

우선 이러한 문제의식에 동감하는 이유는, 근래 제출되는 한국시 내지는 한국문학 연구들에서 텍스트의 특수성이 잘 보이지 않고, 문학 텍스트가 논자의 주장에 근거로서만 취급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물론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조교수

1 이하 괄호 속의 숫자는 조강석(2021), 『한국시의 이미지: 사유와 정동의 시학』, 소명출판의 쪽수이다.

문학 연구도 연구의 일환인 만큼, 논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로서 문학 텍스트가 사용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해당 텍스트의 면면이 충분히 검토되기도 전에, 설익은 주장을 위해 그 주장에 부합하는 텍스트의 일면만을 수집하여 자신의 주장만을 선명하게 내세우는 경우라고 의심되는 논자들이 근래 더욱 눈에 띄었기 때문에 이를 경계해왔다.<sup>2</sup> 그러나 그렇다고 다시 신비평이나 러시아 형식주의처럼 시 텍스트 내부에만 갇히는 것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시 텍스트의 면면을 충분히 살피고 이에 기반해서 작가론이나 당대 사회의 면면들과 연결하는 것은 문학 연구의 인문학적 의의를 위해서도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지점이다. 조강석 교수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방법론적 전회에서 ‘이미지’와 ‘정동’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 이미지는 시의 본질적인 특성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상상하는 방식 속에 근본적으로 정치하는 방식을 위한 조건이 놓여 있다”(15)<sup>3</sup>는 점에서 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 장소로서 기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정동 또한 시 텍스트 내부의 중요한 특징(특히 ‘서정시’(抒情詩) 본연의 의미에서)이면서 동시에 정동은 타자와의 마주침으로 가득 찬 공간이며 “육체가 이미지를 만나는 곳”<sup>4</sup>으로서 “세계와의 마주침 속에서 발생하는 명료하지 않은 인지, 명명되지 않은 감각들, 그로 인한 ‘언어적 출혈’이라는 맥락”(358)에서 시를 읽을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내부와 외부를 매개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즉, 시를 시로써 가능하게 하는 이미지와 정동이라는 두 주요한 키워드에 대한 연구 방법론을 정리함으로써, 앞으로의 시 연구를 일신하겠다는 중요한 문제의식을 이 책은 담고 있다. 특히 시 텍스트를 다른 텍스트

2 이러한 관점에서 서평자는 역사학자의 관점에서 이육사의 시를 전유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정기인(2018), 「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민족문학사연구』 67, 민족문학사연구소).

3 이는 조르주 디디-위베르만의 관점이다(조르주 디디-위베르만(2012), 김홍기 역, 『반딧불의 잔존-이미지의 정치학』, 길, p. 60 참조).

4 브라이언 마수미(2011), 조성훈 역, 『가상계』, 갈무리, p. 87.

들과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 이미지, 정동, 운율 중의 운율은 한국 시 연구 초창기부터 다루어져 왔고 최근에 관련한 중요한 방법론적 반성과 연구들이 도출된 것<sup>5</sup>과는 달리 이미지 연구의 방법론적 진회에 대한 폭넓은 성찰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조강석 교수의 논의가 독보적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 2. 시 이미지 연구 방법론

그렇다면 이러한 시 이미지 연구 방법론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이론을 섭렵하면서 동시에 구체적인 시 텍스트를 바탕으로 이론화 작업을 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이 책은 우선은 서구 이론을 참조하여 변형한 이후에 이를 한국시에 도입하여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흥미로운 것은 이 과정에서 시 이론뿐만 아니라 이미지에 관한 이론, 특히 미술에서 발흥한 이미지 이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도상해석학은 미술사 연구에서 중요한 방법론으로 조강석 교수의 시 이미지 연구 방법론은 여기에 크게 빛지고 있다. 특히 바르부르크와 파노프스키 그리고 이를 텍스트와 이미지의 “상호침투와 혼용이라는 관점에서 재점유”(45)하고 있는 W.J.T 미첼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데, 이에 따르면 이미지 해석은 세 단계를 거치고 각 단계는 무분별하게 섞이지 않고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첫 번째 단계는 작품의 형식 요소들에 관심을 기울이며 이를 기술한다. 두 번째 단계는 주제를 도상학적으로 분석한다. 세 번째 단계는 “작품을 통해 한

5 장철환(2011), 『김소월 시의 리듬 연구』, 소명출판; 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2012), 『번역시의 운율』, 소명출판; 윤덕진(2014), 『전통지속론으로 본 한국 근대시의 운율 형성 과정』, 소명출판; 박슬기(2014), 『한국 근대시의 형성과 율의 이념』, 소명출판; 박슬기(2018), 『리듬의 이론』, 서강대학교출판부; 김남규(2018), 『한국 근대시의 정형률 연구』, 서정시학 등을 들 수 있다.

시대의 정신적 풍토를 밝히는 도상학적 해석”(37)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파노프스키가 도상해석학의 3단계 방법론에 대해 논의한 비유를 상세히 예로 든다. 어떤 남자가 길에서 모자를 벗어 나에게 인사할 때 1단계에서는 행동 그 자체를 파악하고 기술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동작의 관습적 의미를 설명한다. 즉 이것이 인사를 나타낸다는 사실과 연관시킨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 동작과 관련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정보를 종합하여 사물을 보는 방식과 세계에 대한 반응방식을 해석”(42)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어떤 남자가 길에서 모자를 벗어 인사한다는 사회적 행위에 대한 해석과 시에서 이미지 해석이 어떻게 같은 층위일 수 있는냐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지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이라는 미첼의 논의를 인용하며 답한다.

이렇게 이미지를 세 단계로 나누어서 해석하는 도상해석학의 방법론을 도입하면서 이 책이 거듭 강조하는 부분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시 텍스트의 내적 논리에 충실하게 텍스트를 기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때 텍스트는 “문화와 제도, 그리고 사상의 알리바이”(7)로 전락하고 만다는 우려를 거듭해서 표출하고 있다. 이렇게 문학 텍스트를 문화, 제도, 사상으로 선불리 환원하는 것을 경계하는 까닭은, 문학 텍스트는 문학 텍스트만의 특수성이 있고 그것이 문학을 문학답게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언으로 정리한다.

첫째, 문학 이미지는 (단지) 표상하지 않는다.

둘째, 문학 이미지는 메타포의 수사적 기능에 한정되지 않는다.

셋째, 문학 이미지는 그 자체로 능동적 사유의 일환이다. (68)

문학이 무엇인가를 단지 표상(表象/representation)한다면 표면으로 떠오른 것만이 문제가 된다. 그런데 문학 텍스트는 “표상하며 은폐”(68)한다. 따라서 다른 텍스트들과 다르게 ‘무의식’을 논할 수 있는 두꺼운 텍스트라 할

수 있다. 둘째 문학 이미지는 메타포의 수사적 기능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학 이미지는 고정된 상징과 기성 관념이 되려는 연역적 충동에 저항(68)한다는 의미이다. 예술은 새로움을 추구한다. 일상적인 반복을 깨는 것이 중요한 만큼 기존의 고정된 상징과 관념을 벗어나려 한다. 마지막으로 문학 이미지가 그 자체로 능동적 사유라는 것은 특히 벤야민과 이를 원용한 조르주 디디-위베르만의 논의를 참조하고 있다. 벤야민의 사유이미지에 관한 아도르노의 평가를 원용하며, 전통적인 개념적 사유가 인습적이고 노화되었다면, 이미지-사유는 사유의 자발성과 에너지를 자극하는 생성적 사유라는 것을 강조한다. 또 지평적 사유와 이미지-사유를 대비하며 지평적 사유가 “역사에 대한 통찰, 정치적인 입장, 메시아적 구원 등”과 관련 있다면 이미지-사유는 “유동하며 불안한 것이지만 정치적 무의식의 기저에서 형성되는 새로운 가치를 과생시키는 중요한 역량을 보유”(81)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제시되지 않아서 아쉽지만, 이러한 이미지-사유에 관한 시 읽기 3단계 방법론을 바탕으로 조강석 교수는 김수영의 「병풍」을 꼼꼼하게 읽어서 실제 ‘내부에서 외부로의 전개’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친절하게 선보이고 있다.

신비평과 러시아 형식주의 이론부터 시작해서 정신분석학, 마르크스주의, 신역사주의를 경유한 시전공자 관점에서 이러한 조강석 교수의 이미지 분석 방법론은 어찌 보면 ‘우리’가 시를 대할 때 사용해온 익숙한 방법이다. 그러나 문화론적 전회 이후의 논문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시 텍스트부터 출발해서 작가와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상식’은 이제는 상식이 아닐지 모른다는 우려를 하게 한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말끔하게 다듬어진 시 분석 방법론은 시 교육 현장에서 긴요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며, 근래 꼭 필요한 방법론이었다고 할 수 있다.

### 3. 이미지 연구 방법론과 김수영-김춘수 연구 사이의 간극

이 책의 2장은 이렇게 시의 이미지 연구 방법론에 기초해서 “이미지-사유라는 개념으로 재정식화하고 이를 통해 한국시를 읽는 귀납적 사례를 제시”(8)했다고 서문에서 밝힌다. 그러나 2장에서 주로 다룬 김수영과 김춘수의 시와 시론에 관한 논의들은 앞서 제시한 이미지 연구 방법론을 따르지 않는다. 앞서 여러 번 강조했듯이, 이러한 이미지 연구 방법론은 ‘내부’로부터 외부로의 전개라는 순서가 중요하다. 이는 문학 텍스트를 어떠한 ‘문화, 제도, 사상’과 같은 외부적인 것의 ‘알리바이’로 사용되지 않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2장의 논의들은 아래와 같은 외부적인 계기들을 문제의식으로 강조하고 이를 텍스트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따른다.

4.19를 통해 환기된 시민적 윤리의식과, 박정희 정권의 경제발전 구호에 대한 대중의 암묵적 동의 속에 잠재된 일상의 욕망 사이에서 발원하고 부유하는 ‘정서적 변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당대에는 어떤 사유가 개진되고 해법들이 모색되었는가 하는 것이야말로 1960년대의 문학 작품들이 주목한 주요 의제가 아닐 수 없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sup>6</sup> 본고에서는 외적 환경의 변화가 자극하는 ‘신체변용’에 따른 ‘행동능력의 연속적인 변이’로서의 ‘정동’과 그것의 표현 양상인 시적 이미지에 주목하면서 1960년대 문학 지형 속에서 김수영의 시에 나타난 ‘이미지-사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25)

위에서 인용한 문제 제기에서 잘 나타나듯이, ‘4.19’ ‘박정희’라는 외부적 계기를 먼저 전제하고, “이를 검토하기 위해” 시적 이미지에 주목한다는

— www.kci.go.kr

6 이하 진하게 강조는 인용자.

것은 1장에서 전제한 시 방법론과 거리가 있다. 분명 앞서 정립한 시 분석 방법론이 가장 우려했던 지점은, 시 텍스트가 사상의 알리바이로 기능하지 않기 위해서 시 텍스트 ‘내부’에서 먼저 시작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외부적 계기를 전제하고 시 텍스트를 바라보게 되면 시 텍스트 중 그러한 외부적 계기에 호응 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만이 취사 선택되고, 결국 개별 시는 환하게 해명되고 고유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상의 ‘알리바이’로서만 기능한다. 물론 이 연구의 시작은 김수영 시의 내적 실재로부터 시작해서 외부의 맥락들과 연결하다 보니까 이것이 4.19나 박정희의 문체까지 가 닿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독자들의 흥미를 유도하고 문제 제기를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을 것이라고 선혜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책 체제 속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이렇게 외부적 계기를 “검토하기 위해” 시 텍스트를 분석하겠다는 내용은 수정되었어야 할 것이다. 이는 이 책이 전작으로 “이미지-사유와 정동의 시학”을 위해 쓰인 것이 아니라 여러 편의 논문들을 모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라고 보인다.

더 나아가, 이는 이 책이 두 가지 계보의 간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강석 교수의 근래 작업을 주의 깊게 따라온 독자라면 이 책을 두 가지 계보 속에 위치 지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이미지’ 관련 논의로 『이미지 모티폴로지』(문학과지성사, 2014)와 바로 연결되며 『틀린의 기둥』(문학과지성사, 2021)의 이미지 관련 글들과 직결되어 있다. 이는 이 책의 1장과 3장에 해당한다. 둘째는 김수영과 김춘수를 중심으로 한 1960년대 시와 시론에 관한 논의로 이는 『비화해적 가상의 두 양태: 김수영과 김춘수의 시학 연구』(소명출판, 2011)으로 이 책의 2장과 직결된다. 전자는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국의 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꾸준히 탐구하고 있는 작업이며, 후자는 김수영과 김춘수라는 1960년대 대표적인 시인이자 라이벌을 통해 한국시의 중요한 현대적 분기점을 해명하려는 시도이다. 물론 조강석 교수는 김수영과 김춘수의 시 세계를 매개로 이미지라는 중요한 문

제를 마주하게 되었을 것이고, 이미지를 중심으로 김수영과 김춘수를 해명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문제가 완전히 괴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책의 2장은 이 둘 사이에 어느 정도의 간극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2장은 김수영과 김춘수에 관한 충실하고 깊이 있는 논의였다는 점에서는 큰 공부가 되었지만, 1장의 방법론적 전회가 어떻게 확장될지를 기대하는 독자의 입장에서 김수영과 김춘수에 관한 기지(既知)가 분석과 방법론을 압도한 듯이 보이는 것이 아쉬움이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주장에 공감하는 입장에서는 더욱더 그러하다.

한 시인의 시세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 특정 사상이나 이념이 해석적으로 활용되고 그 시인의 산문이나 시론이 유력한 증거로 간주되는 것은 종종 있는 현상이다. 그리고 해석에 따라서는 이것이 상당한 타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거두절미하자면, 신동엽의 경우 이런 양상이 지나치게 과잉되어 오히려 그의 시세계를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는 데 방해가 되어왔다는 것이 본고의 중심적 문제의식이다. (246)

유독 김수영과 김춘수에 관한 글들이 그들의 시론과 산문에 관한 논의에서 시작하는 것은, 조강석 교수의 웅숭깊고도 치밀한 시 텍스트 분석을 애정하는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 4. 정동과 김소월

이 책의 대단원에 해당하는 김소월 「개여울」에 관한 글은 이러한 아쉬움을 일소하며, 이 책의 제목이 왜 “이미지-사유와 정동의 시학”인지를 상기시킨다. 정동은 근래 한국 인문학계에서 가장 뜨거운 개념 중 하나이다. 혹자는 affect를 낯선 ‘정동’ 대신에 ‘정서’로 번역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지

만, 조강석 교수는 왜 ‘정서’로 번역해서는 안 되는지를 매우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마수미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동은 “아직 주체로 정립되기 전의 신체가 외부 신체와 부딪치면서 외부를 변용시키고 또 스스로도 변용되는 사건적 힘”<sup>7</sup>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렇게 타자와의 마주침과 주체의 변용과 이를 바탕으로 한 시적 주체의 ‘탄생’의 측면까지 논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 연구에서 정동은 이미지와 함께 ‘내부에서 외부로’의 전개에 적합한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김소월의 「개여울」은 기존 신비평에서 전제하는 선형적이고 단일한 서정적 주체로 읽는 관습화된 독법을 거부하고 시 텍스트라는 내적 실재를 꼼꼼하게 재구성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김소월의 다른 텍스트들을 참조하여 설득력 있고 새로운 해석을 도출한다. 이에 따르면 개여울은 두 명의 대화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개여울 앞에 앉아서 떠난 님을 생각하고 있는 인물과 그 인물을 바라보며 말을 건네는 인물, 이렇게 두 인물의 대화적 관계로 재해석된다. 즉 “당신은 무슨 일로/그리합니까?/홀로히 개여울에 주저안자서//파릇한풀포기가/도다나 오고/잔물은 봄바람에 해적일째에//가도 아주가지는/안노라시든/그러한약속이 잇섯겟지요”까지는 개여울에 앉아서 무언가를 생각하듯 하염없이 여울을 바라보는 인물에게 말을 거는 인물의 발화이다. 그 이후 “날마다 개여울에/나와안자서/하염업시 무엇을생각합니다”는 개여울에 앉아있는 인물의 발화이고, 마지막 5연의 “가도 아주가지는/안노라심은/구지닛지말라는 부탁인지요”는 3연의 “가도 아주가지는/안노라시든/그러한약속이 잇섯겟지요”라는 수사적 추측과 호응하는 수사적 질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서정시를 단일한 시적 자아의 정서를 표출하며 ‘세계를 자아화’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을 넘어서, 타자와 타자의 마주침이 발생하는 정동의 장소로서 볼 때, 기존 해석의 불충분함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이러한 분

7 이명호(2015), 「문화연구의 감성론적 전환을 위하여: 느낌의 구조와 정동경제론 검토」, 『비평과 이론』 봄호, pp. 125-126.

석은 선명하게 보여준다.

이 글을 끝내기 전에 하나 더 지적할 문제는, 이 책에 오타가 꽤 많이 눈에 띈다는 것이다. 내용상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오타도 있었지만, 내용을 이해하는데 혼란을 주는 오타들도 발견된다.

- (1) “**덮어 놓은 책은 기도와 같은 것**”이라는 표현은 책을 기도에 유비喩比한 것이지 **기도를 책에 유비한 것이** 문면에 드러나는 자연적/사실적 의미이다. (99)
- (2) **병풍이 허위를 비쪽보다 더 높은 곳에 놓는다는 것은**, 그것을 그렇게 읽는 이의 현재 상태와 의지를 드러내는 것에 다름 아니다. (116)
- (3) (1)과 (2)에 **밀줄이 그어진 어휘**는 남의 말을 전하는 데 사용된 어미를 포함하고 있다. (391)

(1)은 기도를 책에 유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가 빠져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는 병풍이 허위를 비쪽보다 더 높은 곳에 놓는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비쪽을 허위보다 더 높은 곳에 놓는다는 것으로 보인다. (3)에서는 본문에 해당하는 (1)과 (2)에 밀줄이 없다. 이외에도 2~3페이지에 하나씩은 오타가 보일 정도로 오타가 많아서 독서를 방해한다. 이처럼 책 편집에서 마지막의 교정이 아쉽다.